인문학속예술이야기

19세기, 낭만

슈만Schumann 1810~1856

• 독일 성숙기 낭만주의의 대표적 작곡가

- 대표적 장르; 피아노음악, 예술가곡, 심포니, 실내 악, 협주곡.
- 슈만의 미학관 ; 시적인 것 추구. 음악과 문학의 밀 접한 연관성 강조.
- <mark>문필활동</mark> ; 음악잡지 음악신보 창간. 허구의 인물 로 구성된 다윗동맹원을 고안, 필명으로 글 발표.

영화,호로비츠를 위하여 중 슈만 트로이메라이,<mark>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2</mark>번



쇼팽Chopin

• 피아노음학 10분 나 10년 세계를 표출 한 작곡가, 폴란드 출신으로 주로 파 리에서 활동. 1830년 연주와 공부를 위해 바르샤바를 떠남. 1831년 이후 빠리에서 예술적 자극을 주는 작곡가 <mark>들과 교류(</mark>베를리오즈, 리스트, 파가 니니)



• 음악적 특징 ; <mark>바흐와 모짜르트를 이상 적 모델로</mark> 삼아 독자적 양식 발전시 김 우아하고 분위기 있는 선율 짧고 **개찬 행 생**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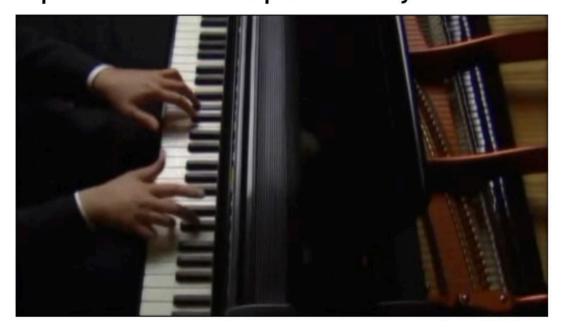
영화 피아니스트 쇼팽 Ballade no.1 in G minor op.23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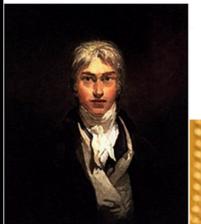
영화 '말할 수 없는 비밀' 쇼팽 왈츠, 흑건



Chopin Fantasie Impromptu Opus 66 in C sharp minor by Tzvi Erez



C.



Joseph Mallord William Turner 1775. 4. 23, 영국 - 1851. 12. 1



영국 20파운드 새 지폐 뒷면의 디자인

전함테메레르의 마지막 항해



터너, 국회의사당의 화재



터너, 노예선



낭만주의 <mark>오케스트라</mark>

- 공공음악회의 중심장르는 오케스트라
- 런던필하모니, 뉴욕필하모니, 빈필하모니등의 다 수 직업 오케스트라 창립.
- 콘서트 오케스트라, 오페라하우스, 극장, 카페, 무도장 등
- 19세기 초 40명 규모-19세기 말 90명 규모로 확 대
- 확대된 음역의 목관, 금관악기에 벨브 첨가.

권조 조사초 기저이아 에읗기드

• 18세기까지 악장이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다면 19 세기에는 <mark>지휘자로 역할 이양.</mark>

메델스존

Felix Mendelsshon-Bartholdy 1809-• 독일 함부르크 출생 1917

- 음악가로는 <mark>드물게 좋은 환경에</mark>서 훌륭한 음악교
- 음악, 회화, 문학 등에서 뛰어난 재능
- 누이 파니도 재능있는 음악가
- 바흐, 헨델, 글룩, 하이든, 모차르트의 음악들을 발 <mark>굴.;</mark> 바흐 마태수난곡 초연

部院

- 라이프치히 음악원 창설 1843
- 고전주의적 음악관에 입각한 <mark>낭만음악</mark>)작곡. 밝고 투명한 전개

한여름밤의 꿈



멘델스존 '한여름밤의 꿈1843'

- 세익스피어의 희곡
- 이미17세에 서곡 작곡
- 프로이센 국왕의 의뢰로 서곡을 포함한 (12개)의 모음곡으로 구성된 한여름밤의 꿈 작곡.
- 여기서 정령들과 요정들의 웅성대고 킥킥대는 소리를 표현, 마술적인 밤의 매력을 들어냄.
 - <mark>하지 전날 밤의 기이하고 신비한 세상</mark>을 내용으로 악곡을 작곡.
 - 연주회용이 아니라 연극 공연에 사용.

브람스Johannes Brahms1833~1897

- 독일 함부르크
- 어렸을때부터 음악교육 받고 피아노연주와 작곡에 소 질을 보임.
- <mark>피아노연주자로 연주 여행</mark>을 하던중 바이올리니스트 (요하임과 친교.)
- 바이마르의 리스트를 찾아가나 적응하지 못하다가 뒤 셀도르프의 슈만을 만나 인정받음.
- 슈만의 부인 클라라와 평생동안 우정을 나눔.
- 슈만이 '음악신보'에 브람스를 극찬.
- 선독일 악파(바그너, 리스트 등)에 반대하는 서명을 하며 보수적인 (절대음악) 음악가로 활동.
- 일생 오페라를 쓰지 않음.
- 베토벤적 고전음악의 전통을 이어간 작곡가.

브람스교향곡

- 브람스 교향곡 1번은 비평가들의 의해 베토벤 10 번 교향곡으로 불릴 정도로 고전적인 형식을 도 입. 베토벤'운명'적인 동기를 닮은 리듬 사용.
- 4번 교향곡
- 한슬릭(음악평론가)는 이 작품을 '어두움의 근원'이라 지칭. 단조 교향곡으로 <mark>우울함을</mark> 그대로 지닌채 끝남을 비유.
- 4악장 바흐의 칸타타 '주님을 그리오니'의 주제를 변형. 베이스 테마를 변형하여 샤콘느를 구성.

브람스 교향곡 3번 3악장



브람스 교향곡 4번1악장



브람스 교향곡 4번 4악장

